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4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60. 하늘의 큰 전쟁이 일어남

2014. 02. 2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붉은 용에 대하여 자세히 살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2:5~9]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1.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계시해준 것이 5절의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원래 천사였지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게 되었지요?

답: 이 대답은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지만 설명을 하려면 긴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야 될는지,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할는지 잘 모르겠네요.(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알만큼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주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존재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스스로 존재한 자일 수 없지요. 그렇다면 그도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때에만 왜 이런 전쟁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내용의 실상은 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5절 내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거기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인물들을 보면 창세기 3:15과 같습니다. 여자, 여자의 아들, 용 그렇지요. 그런데 창3:15에는 여자, 여자의 후손, 뱀 이렇게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아들입니다.)과 뱀이 서로 싸우겠다고 말씀했지요. 그렇게 된 배경을 여기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싸웁니다. 용은 사단이지요. 용과 싸우는 미가엘은 누구일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분입니다. 용은 여자의 후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싸우던 상대라는 말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여 미가엘이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2. 그렇군요. 확실하네요. 그런데 왜 미가엘이라고 했지요? 그리스도라고 했으면 아무런 오해가 없을 텐데요.

답: 미가엘이라고 한 것은 싸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싸움의 성질이 무엇인지도 밝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또는 누가 하나님과 동등한가?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하나님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그가 바로 미가엘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용, 곧 사단이지요. 사단이라는 말이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움의 발단은 사단이 된 루시퍼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사야 14:12~15에 기록했지요.

[사14:12~15]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밟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계명성은 새벽별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헬렐인데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고유명사 “루치페르”라고 했습니다. 그 자모 그대로 영어발음으로 하면 루시퍼가 되지요. 이 루시퍼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고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겠다고 합니다. 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선언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비긴다는 말을 영어는 I will be like라고 번역했습니다. 같아지겠다는 말이지요. 그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여호와와 동등하겠다고 하니 창조주이신 여호와 삼위 중에 한 분이 미가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인가?”라고 물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마도 루시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네가 창조주요 스스로 있는 여호와와 동등하다고 하니 여호와가 창조해준 너의 존재를 반납하여라. 그리고도 네가 존재하면 너도 우리와 동등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그런데 존재를 반납하면 존재가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도망하게 되었지요. 자기의 부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루시퍼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런 주장을 드러내놓고 하기 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이런 주장을 교묘하게 선전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동조자로 끌어들이었지요. 그것을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꼬리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3. 예, 미가엘이라고 한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가엘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일곱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피면 오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된 루시퍼가 땅으로 내려왔지요. 에덴동산에서 최초의 여자를 찾아서 자기가 가졌던 같은 정신을 넣어주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한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했지요. 그것은 루시퍼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고 생각한 바로 그 정신입니다. 여자가 뱀을 통하여 제안한 그 말을 받아들여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래서 루시퍼는 옛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루시퍼에게 한 같은 판결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아담 부부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준 존재를 반납하라고 했지요. 그것이 정녕 죽는다는 말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해준 존재를 반납하면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우러나지 않은 사상으로 영겁결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의 존재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이 지구에서 몰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는 조건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루시퍼와 싸우기로 하셨지요. 그것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어 아파 애썼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삼위 중에 한 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것입니다. 전쟁 장소가 하늘에서 지구로 옮겨온 것이지요. 사단은 탄생할 때부터 헤롯을 통하여 삼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여러 번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런 위기를 다 넘기시고 십자가에서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사망을 사망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여자가 아파하는 것으로 상징되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부활승천을 나타냈습니다.

4. 예, 미가엘과 사단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원부터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있는 전쟁은 언제 사건입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일입니까?

답: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두 경우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루시퍼가 처음 반역했을 때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이고 결과로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와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찬탈함으로 지구의 장자의 자격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주의 장자 총회가 열릴 때에 거기 참석하므로 때때로 하늘에 있을 곳을 마련했습니다. 이 사실은 욥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5. 우주의 장자 총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익숙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애청자들을 위하여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답: 우주의 장자 총회에 대하여서는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간단히 말하도록 하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호호 창창한 우주에 이 지구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창조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지구 사람들의 무지로 인한 오만이지요. 성경은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3:14,15에 그랬지요.

[엡3:14,15] 이러하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12:22,23]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분명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것을 기록했지요. 욥기 1:6이나, 2:1의 기록이 이 총회의 모습이라고 이해됩니다. 욥기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장소에 참석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볼 때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장면도 포함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0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이 지구의 주인노릇을 했지요. 눅4:5,6에는 시험의 광야에서 예수님께 이 세상은 자기에 넘겨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에게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런 자격으로 우주 장자 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사단이 찬탈한 그 장자권을 탈환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지구의 장자권을 가지셨고 지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가 11:15절을 공부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다스린다고 했지요. 이런 이유들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왕이시지만 지구에 한해서는 그가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 지구의 통치권을 행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게 되었지요. 그래서 최후의 발악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 또 대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있을 곳을 완전히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장면은 두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6.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잘 들어맞은 퍼즐 같습니다.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들어가듯 아주 잘 들어맞습니다. 성경이 참으로 기이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5절 내용을 나누는 중에 7절 내용으로 달려간 것 같은데, 6절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6절 내용을 이야기하시지요.

답: 예, 6절을 읽어봅시다.

[계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은 순결한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분은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가셨고, 사단은 세상에서 그분을 핍박할 도리가 없이 완전히 패배했지요. 하늘에 장자 총회라도 참석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썼지만 완전히 쫓겨났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순결한 교회로 남아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기간이 1260일이지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성전 밖 마당을 짓밟는 같은 기간입니다. 마당을 짓밟는 존재가 누군지 잘 가르쳐주지요. 14절에는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괴롭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기간인데, 광야는 교회를 표상하는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자도 교회를

표상하고 여자가 도망간 광야는 고난 받는 교회를 표상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40년을 광야에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의 기간이었지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생활의 표상입니다.

[행7: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순결한 진리교회가 고난당하는 기간을 광야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분풀이할 데를 찾은 것이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경배하는 무리들이었지요. 가장 효과적으로 핍박하는 것은 그들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햇불처럼 타는 별로 임해서 교회를 썩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큰 환난 기간이고 광야에 있는 기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다 광야에 있는 것과 같지만, 특별히 1260년 진리가 짓밟힐 때에 숨어서 진리를 고수한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 기간을 양육 받는 기간이라고 한 것은 이런 기간을 거쳐서 성경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기회를 찾도록 성숙하는 기간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동시에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섯째 여섯째 나팔 때에 푸른 풀과 수목을 해하지 못하게 한 것도 다 같은 기간에 해당되었지요. 어른에게 야단을 맞은 아이가 그 어른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자기보다 약한 그 집 아이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7. 알았습니다. 이제 7절부터 말씀할 차례인데, 5절을 말할 때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7절부터 설명할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요.

답: 예, 이미 상당한 내용을 말했지만 7절부터 읽어봅시다.

[계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이 구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용의 사자들이 있는데, 미가엘의 사자도 있습니다. 사자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어 앙겔로스인데, 다른 곳에서는 주로 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요즘 번역들은 미가엘과 관련하여서는 천사라고 번역하고 용과 관련하여서는 부하라고 번역했네요. 둘 다 천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용의 천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 모양이지만 원어는 똑 같은 앙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용의 천사들이지요. 그래서 천사라는 말이 다 선한 존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의 천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루시퍼의 주장에 동조한 자들인데, 아마도 천사의 능력을 과신하도록 유혹하고 설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에덴동산의 여자가 솔깃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었겠지요. 그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이 사망의 세상에서 사망의 왕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망에 묶어두려고 하지요. 생명과 사망의 전쟁은 아직도 이 지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왕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모

든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부활한 그 생명을 받아드린다고 진정으로 고백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사단이 퍼뜨린 거짓말에 천사들도 솔깃했는데,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훨씬 더 쉽게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활개 치는 장소가 되었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감옥과 같습니다. 사단은 영원한 심판으로 소멸될 때까지 이 흑암의 세상에 있으면서 왕 노릇을 하지만 사실 흑암의 세상에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지요.

[벧후2:4]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지옥이라고 한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복음서에는 “게헨나”를 썼는데 여기는 “탈타로스”를 썼습니다. 게헨나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 인데, 구약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한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골짜기에 몰록의 사당을 짓고 자녀들을 불에 태워 제사했지요. 요시아 왕 때에 몰록 사당을 헐고 거름 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쓰레기들이 쌓이자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불로 태웠습니다. 쓰레기가 날마다 쌓이니까 항상 불을 태웠는데, 한쪽에는 썩어서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한쪽에는 불이 계속해서 탔습니다. 그래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세에 악과 악에 속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불 못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에 영원한 불에 살라서 재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상징적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지옥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탈타로스는 흑암의 구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으로 어두움의 세상이 된 이 지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고, 흑암의 세력이 주관하는 곳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라고 했을 때 사자가 천사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말이 길어진 것 같네요.

8. 예, 목사님, 좋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해서 확실한 이해를 하는 것은 좋지요.(확실한 이해가 되었으면 좋는데,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이해를 어지럽힐까봐 걱정이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청자들께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의 사자들이 용의 사상에 동조한 천사들이고 그들은 사단의 천사들이며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그 땅을 탈타로스 지옥이라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구절 이야기를 하십시오.

답: 다음 구절도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지요. 사단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마귀는 쫓겨난 자라는 뜻이라고요.(예.)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들의 노력은 집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상입니다. 소위 영혼불멸이라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몸만 죽지 그 사람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선을 행하면 죽어서 영혼이 천국이나 극락에 간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신이라고 겁도 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천하를 피었습니다. 하와처럼 그렇게 꾀

에 넘어갔네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불멸설은 결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적하는 자 사단이 최초로 말한 온 천하를 꾀는 기가 막히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단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참말로 믿으니 그 속임수가 얼마나 깊고 오랜 것인지 알만하지요. 성경을 읽고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신학자들까지 다 속고 그 속은 것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으니 정말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꾀는 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9.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니까 몸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다고 멋진 거짓말을 창안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자기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도록 했지요. 아주 교묘한 수단입니다.

답: 그렇습니다. 이유는 소위 불멸하는 영혼의 세계는 육신을 가지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자기 부하가 된 악한 천사들을 동원하여 마치 죽은 자들의 영혼이 살아 있는 것처럼 활동하게 하여 귀신노릇을 하게하고,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이런 속임수에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사단의 일을 도우지 말아야 합니다. 꾀을 받지 않는 것이 사단의 일을 도우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10. 예, 목사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단과 그리스도의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원부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온 천하를 꾀는 거짓말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올바르게 살피고 공부해서 속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